

# 1. 일본 문화 육일기

육일기 모양은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 뜬 것이다. 이 모양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육일기 모양은 풍어기로, 그리고 출산과 명절을 축하할 때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 일본 문화와 육일기



『선악아수백』속의 「기요모리 스님」아다치 긴코, 1885



「복신의 에노시마 유람」 오치아이 요시이쿠, 1869

## 시민 생활과 육일기



풍어기를 올리고 귀환하는 피난 어선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우케도어항) (2017 Kyodo News제공)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을 풍어기로 축하하는 사람들 (2016 Kyodo News제공)

## 참고 자료

### ●가토 관방장관 기자회견 2021년 5월 18일 오전 (발취)

육일기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그 모양은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 뜬 것이고 풍어기, 그리고 출산과 명절을 축하하는 깃발 등으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정한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 이러한 육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 기회에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https://nettv.gov-online.go.jp/prg/prg22653.html>



## 2. 공식 자위대기

해상자위대 자위함기(自衛艦旗)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自衛隊旗) (연대기(連隊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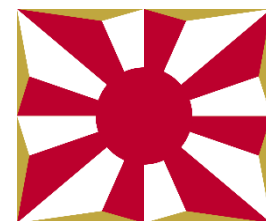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연대기)는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이후, 자위함기 및 연대기는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되어 왔다.

이 깃발들은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 자위함 또는 부대의 소재를 알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국제사회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해상자위대  
자위함기



육상자위대 자위대기  
(연대기)



2019년  
중국에서 거행된 국제관함식 때  
칭다오항에 입항한 해상자위대 함정



2018년  
파리에서 거행된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부대(싱가포르군과 함께)



1998년  
한국에서 거행된 국제관함식 때  
부산항에 입항한 해상자위대 함정

#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욱일 디자인

햇살이 뻗어 나가는 욱일 디자인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국기, 애리조나주(미국) 주기(州旗), 라라주(베네수엘) 주기 등 유사한 디자인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국기(1995년 제정)

<https://www.vlada.mk/?ln=en-gb>



애리조나주 주기(1917년 제정)

<https://az.gov/>



베네수엘라 라라주 주기(1901년 제정)

<https://lara.gob.ve/home/>